

염화철, 탱크로리 전복 대량유출

청원, 염화제2철 2톤 하천으로 유입 ... 소방본부 방제에 총력

충북 청원군에서 화학약품을 실은 탱크로리가 전복돼 일부 화학약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됐다.

청원군에 따르면, 6월25일 오전 9시30분께 충북 청원군 소재 화학약품 판매기업 입구에서 탱크로리가 2미터 아래 논으로 추락했다.



사고로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염화제2철(FeCl_2) 2톤 가량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됐다.

사고 직후 청원군과 환경당국은 방제팀을 긴급 투입하고 도로 위에 쏟아진 염화제2철을 흡착포로 제거하는 등 방제작업에 나섰다.

또 하천으로 유입된 염화제2철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장비를 동원해 독을 만들어 오염된 하천을 막고, 전문 방제기업을 통해 정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축산 분뇨 분해물질로 사용되는 염화제2철은 물과 섞이면 산도를 높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염화제2철이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분리가 쉽지 않아 물과 자연스럽게 희석될 수 있도록 방제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군 관계자는 “다행히 하류인 미호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차단한 상태”라며 “독성물질은 아니지만 하천의 산도를 높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25>